

# “60년... 앵글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죠”

‘강봉규의 사진-인간극장’ 25일~12월1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격세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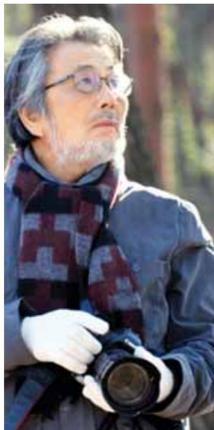
‘아버지의 세월’



‘흐르는 물처럼’



‘호남선 3등 열차’



강봉규

“쉽게 읽히는 사진을 찍어야 해요. 사진은 한눈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찍는 게 아니라 사진에 머리 속으로 구도를 그려보고 예술적 감각을 담도록 노력해야 해요.”

한평생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강봉규(82) 사진작가는 셔터를 누를 때 여전히 신중하다. 60여년 간 카메라를 들었지만 한번도 대중 찍은 적이 없다. 본인이 생각한 완벽한 구도, 모습, 풍경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찰카’ 소리가 들린다.

오는 25일 서울시립미술관 북서미술관에서 ‘강봉규의 사진-인간극장’ 초대전을 앞두고 있는 강 작가를 22일 만나 사진 인생과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강 작가를 말할 때 신문기자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는 1959~1980년 광주일보 사진부장·출판국장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남신문 견습사진기자로 입사하며 처음 카메라를 들었어요.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취재 현장을 다녔죠. 그런데 사건 현장보다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문사진과는 별개로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 100점 기증 기념 초대전 1959년 사진기자로 입문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이야기 100세전 준비...영원한 현역

출발 직전인 호남선 열차를 어떻게든 타기 위해 창문에 매달린 사람들, 어린 아들이 추울까 목도리로 꽂꽂 싸매고 나온 엄마. 강 작가가 찍은 사진들은 지금은 잊혀져가는 우리네 옛 일상 이야기다.

“전 화순 동복에서 태어났어요. 오지호 선생님의 아들인 오승우 선생님이 제 2년 선배죠. 어렸을 적엔 친하게 지냈어요. 남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저도 예술적 소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기자로 활동할 때 잔인한 현장 사진도 독자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미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평생 찍은 작품들 중 보존 가치가 있는 사진 100여점을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2000점, 국립현대미술관 3점, 광주시립미술

관에도 30여점을 기증했다. 사진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다. 강 작가가 사진 가치관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고 사진 아카데미도 어느덧 15기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기증을 계기로 12월18일까지 열리는 초대전은 사람과 나무, 물, 몸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들을 시대별로 만날 수 있다. 작품 ‘봄을 부르는 소녀들’은 현재 광주시청 자리에 있던 벚꽃길을 찍은 사진이다. 여인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가는 당시로서는 흔한 풍경도 강 작가 눈에는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었다. ‘격세지감’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딸 모습이 재미있다.

강 작가 머리 속은 여전히 사진 뿐이다. 최근에도 더위를 피하려 아내와 순창 강천사를 찾았는데 계곡물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도 물결 아름다움을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만간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을 계획이다.

“매일 아침 6시엔 일어나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100세 기념전’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진을 찍을 생각이예요.” /김희희기자 kimy@

## 매혹의 ‘반도네온’ 빛고을 적신다

고상지 31일 광주공연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반도네온’은 탱고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악기다. 슬픈듯, 경쾌한 선율의 반도네온은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하는 음악이기도 하다. 국내 음악계의 대표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가 광주 공연(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을 갖는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4번째 무대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이모에게서 반도네온을 얻은 고상지는 혼자 주법을 익힌 뒤 버스킹 공연에 나섰고, 이후 늘 반도네온과 함께였다. 세계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고마츠 료타를 사사한 그는 개인 공연과 함께 김동률·정재형 등의 열

범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4년 자작곡을 담은 첫 앨범 ‘merogre 1.0’을 발표한 그는 탱고 보고장 아르헨티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부터 동양적 느낌을 살린 그녀만의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탱고 음악의 거장 아르토르 피아졸라와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곡들을 연주한다. 레퍼토리는 ‘리베르 탱고’, ‘망각’, ‘천사의 죽음’ 등이다. 더불어 고상지의 자작곡 ‘빛물 고인 방’, ‘Ataque’ 등도 만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중수, 피아니스트 최문석씨가 함께한다.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회원 30% 할인, 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3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클래식으로 듣는 동화이야기

김정아 교수 26일 금호아트홀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2010년부터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했던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사진)씨가 올하는 ‘엄마가 들려주는 음악동화’란 주제로 가족 음악회를 연다.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첫 번째 무대는 뽀랭의 ‘아기코끼리 바바 이야기’가 장식한다. 사냥꾼에게 엄마를 잃은 아기코끼리 바바가 도시에서 모험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왕이 된다는 장 드 브루노프의 동화를 읽은 작곡가 뽀랭이 직접 만든 곡이다.

두 번째 무대는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로 여러 동물들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김씨는 동화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김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티켓 가격 초등학생 이하 5000원, 중학생 이상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6시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낭송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캐뎃센터 뒤 금남문선 1층)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 **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